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일부 재활전문가들의 방문재활에 대한 필요성 조사



The Journal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 이정환, 김계엽¹, 김은정¹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¹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A Study on the Necessity of Home Visit Rehabilitation Therapy by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Work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Jeong-Han Lee, PT, MS; Gye-Yeop Kim, VMD¹; Eun-Jung Kim, PT, PhD¹

Disabled Judgment Center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¹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Dongshi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home visit rehabilitation therapy by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work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7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social worker, nurse, physic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speech-language therapist, special education teacher, and staff of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who were working at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The data were collected over 65 days (2008. 09. 10~11. 14). The results were analysed statistically by the Chi-square test.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was established in Korea by the Ministry of Health in July, 2008. But there are limits to their being able to provide various rehabilitation services for chronic patients and old people.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almost al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N=227) stated that home visit rehabilitation therapy is necessary.

Conclusion: In Korea, the long-term care service has a nursing service and a service supporting physic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but not physical therapy. So, home visit rehabilitation services should include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ain management.

Key words: Home visit rehabilit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hysical therapy

논문접수일: 2010년 7월 15일

수정접수일: 2010년 10월 1일

게재승인일: 2010년 10월 9일

교신저자: 김은정, ddosuny@hanmail.net

1. 서론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내 고령화 추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계속 증가하여 '고령사회(age society)'로 진입, 이후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hyper-age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¹

고령화에 따라 관절염, 고혈압, 당뇨, 만성 요통 등의 퇴행성

질환 발병률도 함께 증가하고, 그 외 뇌졸중과 심장질환, 척수장애,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이 제한되어 재활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 노인과, 만성 장애를 가진 노인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2,3} 그러나, 노인환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사회의존도가 높고, 의료재활서비스의 이용측면에서 소외되어 있어 재활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재활 치료 및 요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⁴ Crimmins 등⁵은 70세 노인의 경우 잔여 수명의 24%, 80세 43%, 90세 74%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삶의 의존도가 높아지며, 기능상 문제

가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된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증가율에 비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⁶ 따라서, 만성질환, 부상, 장애 등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일상적인 간병수발, 간호보호, 재활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서비스로의 요양보호가 필요하다.⁷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노인료 및 장기요양비용은 국가에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서비스 질(quality)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8,9}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함께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으나, 재정 마련과 운영방법, 전문인력 측면, 인프라 구축 미비 등 여러 문제를 보이고 있다. Choi 등¹⁰의 연구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겪는 문제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개발과 시행과정 중 나타난 다양한 요인에 대해 정책시행 전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노인과 장애인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요양시설은 각 시도별로 충족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이 또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 못하다.¹¹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재가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을 목표로 장애고령자의 건강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시행하였다.¹² 이 제도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등급의 판정자의 요양급여 대상자로의 진입을 억제하는 보완적 제도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방문재활은 기능적, 사회적 문제를 가진 재가장애노인의 의료재활욕구를 충족시키는 적극적인 의료재활서비스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재활팀을 구성 팀접근 방식으로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의료재활서비스를 가정방문형태로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말한다.¹³

수급권자의 의료재활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은 이러한 수급권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장기요양의 제도변화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존중기능 유지 및 향상을 꾀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에 사회복지시설 중 설문에 답한 재활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재활이 재가장애인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방문재활을 시행할 전문가별로

구분하여 제도 도입의 우선 순위를 알아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별로 구분하여 물리치료사에 의한 방문재활 필요성에 대해 기관 종별 종사자의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조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등록된 장애인복지관 147개,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노인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 300개에 설문의회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종사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총 65일(2008년 9월 10일~11월 14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설문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시간 응답(Online survey)으로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메일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추가메일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여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부 설문을 의뢰한 기관 중 직접 내원하여 설문지를 회수하기를 희망하는 곳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171부가 회수되었으며, 연구자의 방문 회수설문지는 76부로 이 중 설문응답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미 해석이 어려운 20부의 내용을 제외하고, 총 227부를 회수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내용

본 연구를 하기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칭)에서 재활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조사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선행 연구논문을 토대로 설문내용을 발췌하였다.^{2,13,17} 설문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질문의 내용, 순서, 어휘, 질문 형태 등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소지면적, 근무기관, 근무경력 3 문항), 재가장애인 및 노인의 방문재활이 필요한 이유(5문항), 각 직종별 재활전문가의 방문재활의 필요성, 방문재활치료 세부내역별 필요성(4문항), 각 기관별로 재활전문가들의 물리치료사 방문재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드 척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4.0 window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방문재활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하여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방문재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재활전문가별 응답문항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인 χ^2 검증(Chi-squar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III. 결과

1. 시설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시설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전체 227명으로 사회복지사 57.3%, 간호사 6.2%, 물리치료사 16.3%, 작업치료사 5.3%, 언어치료사 6.6%, 특수교사 8.4%이었다. 근무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83.7%, 노인복지시설 10.1%, 부설 장기요양기관 6.2%이었다. 근무 경력은 3년 이하 44.9%, 3~5년 이하 23.8%, 6~10년 이하 22.9%, 11~15년 이하 6.2%, 15년 이상 2.2%로 5년 이하가 68.7%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Table 1).

2. 재활전문가들의 방문재활이 필요한 이유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방문재활이 급여성서비스로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재가장애인의 병원왕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에 매우 그렇다 33.0%, 그렇다 52.9%, 보통 13.2%, 그렇지 않다 0.9%로 나타났다. 재가장애인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에 매우 그렇다 26.0%, 그렇다 53.3%, 보통 18.9%, 그렇지 않다 1.3%, 전혀 그렇지 않다 1.4%로 나타났다. 재가장애인의 자기선택권이 확대되어 이용자중심의 급여성서비스 확대 조사에 매우 그렇다 30.8%, 그렇다 51.1%, 보통 16.3%, 그렇지 않다 1.8%로 나타났다. 재가에서 정기적인 재활운동이 가능하여 조기퇴원 및 입원기간을 단축한다는 조사에 매우 그렇다 19.4%, 그렇다 48.9%, 보통 27.3%, 그렇지 않다 4.4%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재활운동이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0.8%, 그렇다 49.3%, 보통 18.9%, 그렇지 않다 0.9%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재가장애노인에게 방문재활이 기능장애 예방,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에 합리적인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19.4%, 그렇다 52.0%, 보통 26.9%, 그렇지 않다 1.8%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habilitation practitioner

Variables	Category	Numbers (n=227)	Percent (%)
A	Social worker	130	57.3
	Nurse	14	6.2
	Physical therapist	37	16.3
	Occupational therapist	12	5.3
	Speech-Language therapist	15	6.6
	Special education teacher	19	8.4
	Total	227	100.0
B	The disabled institutions	190	83.7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23	10.1
	Long-term care center	14	6.2
Total	227	100.0	
C	<3	102	44.9
	3~5	54	23.8
	6~10	52	22.9
	11~15	14	6.2
	15<	5	2.2
	Total	227	100.0

A. Rehabilitation related license and certification

B. Rehabilitation related working institution

C. Rehabilitation related career periods

Table 2. The reason of necessity on visit rehabilitation

Category	5	4	3	2	1
A	75(33.0)	120(52.9)	30(13.2)	2(0.9)	0(0)
B	59(26.0)	121(53.3)	43(18.9)	3(1.3)	1(0.4)
C	70(30.8)	116(51.1)	37(16.3)	4(1.8)	0(0)
D	44(19.4)	111(48.9)	62(27.3)	10(4.4)	0(0)
E	70(30.8)	112(49.3)	43(18.9)	2(0.9)	0(0)

- 1. Very much disagree
- 2. Disagree
- 3. Indifference
- 4. Agree
- 5. Very much agree
- A. Solve inconvenient hospital coming and going & economical benefit
- B. Improvement and remain of residual function
- C. Benefits service expansion of user-centered
- D. Early discharged and hospital stay shorten because regular rehabilitation exercise
- E. Continuous therapy possible for long term care need patient

3. 각 재활전문가 직종별 방문재활 필요성 조사

재가급여서비스에 방문재활이 재가장애노인들에게 중요한가에 대해 각 직종별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전체 응답자 중 보통이다 이상을 답한 사람을 비율로 나타낸 결과 사회복지사는 98.5%, 간호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는 100% 그렇다 이상으로 답하였다. 물리치료사는 71.2%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각 모든 직종에서 방문재활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종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p < 0.02$ 로 유의하였다(Table 3).

4. 방문재활 세부내역별 필요 우선순위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협제도에 방문재활의 세부내역별 필요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227명 중 물리치료사의 재활운동 및 통증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사에 보통이다 이상 응답자가

98.3%, 작업치료 필요도는 96.5%, 특수교사의 방문교육 필요성은 85.8%, 언어치료 필요성은, 82.0%로 나타났다. 리커트 척도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5점 만점에 물리치료사의 재활운동 및 통증치료가 평균 4.3점,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가 3.8점, 특수교사의 방문교육이 3.7점, 언어치료가 3.6점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특수교사의 방문교육과 언어치료 순으로 방문재활 중에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운동 및 통증치료가 가장 우선 필요함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재활전문가별 물리치료 방문재활의 필요성 조사

물리치료사의 재활운동 및 통증치료에 대해 각 기관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매우 그렇다 40.5%, 그렇다 46.8%, 보통 11.6%, 그렇지 않다 1.1%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는 매우 그렇

Table 3. The necessity for home visit rehabilitation by occupation

	Social Workers	Nurses	Physic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Speech-Language Therapists	Special Education Teacher	Total	χ^2 (p-value)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2(1.5)	0(0.0)	0(0.0)	0(0.0)	0(0.0)	0(0.0)	2(0.9)	
3	23(17.7)	0(0.0)	2(5.4)	0(0.0)	5(33.3)	3(15.8)	33(14.5)	29.1
4	63(48.5)	12(85.7)	14(37.8)	10(83.3)	7(46.7)	11(57.9)	117(51.9)	(0.02*)
5	42(32.3)	2(14.3)	21(56.8)	2(16.7)	3(20.0)	5(26.3)	75(33.3)	df:15
Total	130(57.3)	14(6.2)	37(16.3)	12(5.3)	15(6.6)	19(8.4)	227(100.0)	

- 1. Very much disagree
 - 2. Disagree
 - 3. Indifference
 - 4. Agree
 - 5. Very much agree
- * $p < 0.05$

Table 4. The necessity for home visit rehabilitation according to detail content

Category	5	4	3	2	1	Score Mean
A	90(39.6)	112(49.3)	22(9.7)	3(1.3)	0(0)	4.3±0.6
B	46(20.3)	96(42.3)	77(33.9)	8(3.5)	0(0)	3.8±0.7
C	55(24.2)	85(37.4)	55(24.2)	25(11.0)	7(3.1)	3.7±1.0
D	37(16.3)	95(41.9)	54(23.8)	39(17.2)	2(0.9)	3.6±0.9

1. Very much disagree
2. Disagree
3. Indifference
4. Agree
5. Very much agree

- A. Physical therapist-Rehabilitation exercise and pain management
- B. Occupational therapist-Occupational therapy
- C. Special education teacher-Home visit education
- D. Speech-language therapists-Language therapy

다 30.4%, 그렇다 65.2%, 그렇지 않다는 4.4%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근무자는 매우 그렇다 42.9%, 그렇다 57.1%에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 227명 중 37.9%가 물리치료사의 재활운동 및 통증치료가 매우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그렇다는 39.7%로 본 조사에 응답한 기관별로 전체 응답자 중 89%가 방문재활 중 물리치료사의 재활운동 및 통증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기관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p>0.22$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5).

IV. 고찰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실시하여 치매, 중풍 등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공적 사회보험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건강 및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기요양보호라고 한다.¹⁵ 재가장애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질수록 삶의 질도 떨어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¹⁶ 재가급여서비스로 방문재활이 필요함에도 현재 급여서비스 부분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방문재활에 관한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관련종사자 227명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재가급여서비스에 방문재활 도입에 관한 의식조사를 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227명으로 근무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가 가장 많은 응답을

Table 5. The necessity for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ain management of physical therapist

Necessity of Physical therapy	A	B	C	D	χ^2 (p-value)
1	0(0.0)	0(0.0)	0(0.0)	0(0.0)	
2	2(1.1)	1(4.4)	0(0.0)	3(1.3)	
3	22(11.6)	0(0.0)	0(0.0)	22(9.7)	
4	89(46.8)	15(65.2)	8(57.1)	112(49.3)	8.3
5	77(40.5)	7(30.4)	6(42.9)	90(39.7)	(0.22)
Total	190(83.7)	23(10.1)	14(6.2)	227(100)	df:6

1. Very much disagree
2. Disagree
3. Indifference
4. Agree
5. Very much agree

- A.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B.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 C. Long-term care facilities
- D. Total respondent

해주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의 순이었으며, 조사 결과 각 기관에 종사하는 직종별 근무자 수와 응답률의 직종별 빈도가 비례하는 분포를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첩제도에 따른 방문재활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재가장애노인의 병원왕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득,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 자기선택권이 확대되어 이용자중심의 급여서비스 확대와 정기적인 재활운동이 가능하여 조기퇴원 및 입원기간을 단축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요양등급에 따라 방문재활을 포함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급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수행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의료재활욕구에 있어 의사와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을 통해 양질의 급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노인과 장애인에 복지체감도가 높은 효율적 서비스전달체계 수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¹¹ 재가장애노인에게 의료인과 재활전문가를 통해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켜 주는 것은 복지국가와 이용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지향하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17,18} Park¹⁹의 연구에서 서울 거주 노인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재가급여서비스를 원한다고 하였다.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보면, 만성질환자인 장애인들에게 보건간호사에 의한 통증완화 및 기능훈련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2회 정도 물리치료사에게 받은 교육 정도로 보건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치료해야 하는 재활서비스에는 한계가 분명 있다 하였다.²⁰

노인장기요양보첩제도에 재가장애노인에 대한 방문재활이 기능장애 예방,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에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 1.8%, 방문재활이 재가장애노인의 기능장애 예방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에 98.2%가 응답하였다. 방문재활은 환자의 병원집중 현상을 해소, 의료비상승 억제,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여 의료수가 통제에 도움을 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적 차원에서 장기환자의 불필요한 병원치료를 위한 입원을 지양하고, 재가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 만족감을 주고, 일상생활로 빠른 회복을 가져왔다.^{2,21}

사회적 효과로 서구사회에서 재가의료서비스의 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적은 비용으로 치료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의료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병

원 집중화 현상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적 측면이 있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데 있다.²

본 연구결과에서 방문재활의 세부내역별 조사결과 물리치료사의 재활운동 및 통증치료가 필요하다가 본 조사 결과 1위로 나타났으며, 기관 종별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근무자들 대부분이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물리치료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요인을 신체에 적용시킴으로써 잔존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적인 전문영역이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잔존능력 소실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동작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이 향상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²² Yi 등²³의 연구에서도 강원도 원주지역 재가장애인 298명에 욕구조사에, 뇌졸중 환자 50명(62.6%), 외상성 뇌손상 장애인 11명(52.4%)이 방문물리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Kim²⁴의 연구조사에서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이용을 더 희망한다고 하였다.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조사에서 재가 장애인에게 가장 받고 싶은 의료간병서비스 1순위가 물리치료로 조사되었으며,²⁵ Kim의 연구²⁶에서 부산 경남의 환자 270명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15명에게 조사한 결과에서 선호하는 방문재활 서비스 순서로는 일상생활활동지도, 운동치료, 관절운동 등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가장애노인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 복지기관에 있는 종사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방문재활에 물리치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27,28}

본 연구에서는 방문재활서비스 실시 여부와 의식 및 현황조사에 있어, 전국 447개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에 설문을 의뢰하였으나,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종사자들 중 227명만이 응답해주어, 전체 재활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랐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재활전문가들이 많이 설문에 응답해주다 보니 다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현재까지 방문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치료사의 응답수가 적어 방문재활의 인식에 대해 보편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재활전문가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재활전문가들에게 조사함으로써 방문재활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하는 관련종사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재활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재가장애인의 병원왕래 불편함 해소와 경제적 이득,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 이용자중심의 급여서비스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노인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종류가 수급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급여서비스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서비스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재활서비스에 물리치료사에 의한 방문재활을 포함시킬 근거 제공을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 물리치료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방문재활의 법적 근거마련, 현행 인력들이 제공 가능한 업무범위 및 실행방안, 방문재활이 필요한 대상자 선별 방안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재활전문가에게서 방문재활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칭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에 재활서비스가 도입되어 보편적인 의료재활서비스 확대에 이어져야 한다.

Author Contributions

Research design: Lee JH

Acquisition of data: Lee JH, Kim EJ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Kim EJ, Kim GY, Lee JH

Drafting of the manuscript: Kim EJ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material support: Kim GY

Research supervision: Kim EJ, Kim GY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이정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projection by age. 2008.
2. Son MS. A study on the necessity of home visit rehabilitation therapy in care management. Sam Yook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8.
3. Kim EJ. Study of sequallae if discharged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s and home nursing care needs. Kyungpook

4. Jeong KH. The debate on comprehensive on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A longitudinal study on the aging society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2.
5. Crimmins EM, Hayward MD, Saito Y. Changing mortality and morbidity rates and the health status and life expectancy of the older population. *Demography*. 1994;31(1):159-75.
6. Lee YS.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the point at issue of the law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Kor Insure Acad Soc*. 2008;79:163-93.
7. Kim EH.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 of long-term care policy. *J Humanit*. 2003;8:193-234.
8. Oh EJ, Park HS. A study on growing needs for adult day service center in seoule under the new longterm care system. *J Kor Inst Heath Archit*.2006;12(2):41-50.
9. Oh EJ.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and its impact on the elderly care service environments in Korea. *Archtec Inst of Kor*. 2006;50(11):21-4.
10. Choi EY, Kwan SM, Kim CW, Kang JH. Issues in long-term care services in OECD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11. Cha HB, Seok JE, Yang JW. The models on financing and service administration system of long term care; the demonstration project of care management based on community. *Kor Associaion of Social Welfare Policy*. 2006; 27:115-48.
12. Kim YT, Seo K, Lee SJ. A study on the aged home residence rating of CBR research and the assignment: Focused on CBR evaluation of the activity of Kyung-ju city public health center. *Kor Soc Welf Aged*. 2004;24:101-24.
13. Yang YE, Kim ES. A study on the needs about nursing home care physical therapy system. *Bull Inst Env Ind*. 2000; 9(1):19-28.
14. Jang BW. Long term care system in Japan. Gyeonggi-do, Ynangseowon, 2008.
15. Evashwick CJ. The continuum of long-term care: an integrated system approach. New York, Delmar Publishers, 1996.
16. Dhillon V, Hurst N, Hannan J, Nuki G. Association of low general health status, measured prospectively by Euroqol EQ5D, with osteoporosis, independent of a history of prior fracture. *Osteoporos Int*. 2005;16(5):483-9.
17. Kim D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Dankook University. Dissertation of

- Master's Degree. 1999.
18. Lee JS. A study of the case management practice model for the physically disabled at home. Deagu University. Dissertation of Doctorate Degree. 1999.
 19. Park KS. Comparison between the rural and urban elderly receiving public assistance on their needs and util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in kyonggi province. 2001;14(1): 175-211.
 20. Lee IS. Study to development community based home nursing care mode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of Doctorate Degree. 1990.
 21. Kim CW. Aligning Community-Based Care Management to the Risks for Community-Dwelling Chronically-III Elders.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04;23:5-41.
 22. Kwan HC, Kim JG. A comparative study of the future demand for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s by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The Korean Academy of University Trained Physical Therapists. 1996;3(2):8-18.
 23. Yi CH, Lee HJ, Park KH et al. Needs analysis for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by disabled person in the rural areas. The Korean Academy of University Trained Physical Therapists. 2002;9(2):61-82.
 24. Kim EY, Kim CY. Who wants to enter a long-term care facility in a rapidly aging non-western society? Attitudes of older Koreans toward long-term care facilities. J Am Geriatr Soc. 2004;52(12):2114-9.
 25. Park SH. A study on the life style and in-home service needs of the aged. Wonkwa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8.
 26. Kim HJ. A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in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je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0.
 27. Lee TS, Goo BO. Study of importance of grade decision to enforce the insurance policy for long term care. J Kor Soc Phys Ther. 2008;20(2):43-8.
 28. Lee IH, Kwon CS, Hand DU et al. Necessity and features of service required for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y. J Kor Soc Phys Ther. 1999;11(2):61-73.